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광주체전 스타 총집합

볼링

女국가대표 김여진-최진아 스트라이크 대결 '흥미진진'

최복음(전남)-정진호(광주)

남자부 국내 최강 가릴 듯

“파이팅! 핫! 핫!”

전국체전 볼링경기장에 들어서면 선수들이 내지르는 파이팅과 기합소리에 전신이 후끈 달아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실내경기인데도 10개 이상 레인에서 한꺼번에 게임이 진행돼 상대방 선수들에게 기를 뺏기지 않기 위해 엄청난 파이팅을 보인다.

볼링경기는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많은데다 스피디한 진행과 일반인들도 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이 몰리는 경기다.

제88회 광주전국체전이 열리는 8~13일까지 서구 ABC볼링장에서는 일반부 남·여 경기, 송정리 더원볼링장에서는 학생부, 북구 텐핀볼링장에서는 해외동포부 볼링경기가 펼쳐진다.

이번대회에는 지난 3일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끝난 2007년 세계여자볼링선수권대회 2인조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최진아(대전시청)와 남보라(서울 시설관리공단)가 출전한다.

또 광주대표인 김여진(광주별인퍼컴), 강혜은·홍수연·윤희여·이나영·손연희(이상 광주별인퍼컴)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총 출전 고향의 명예를 걸고 경기를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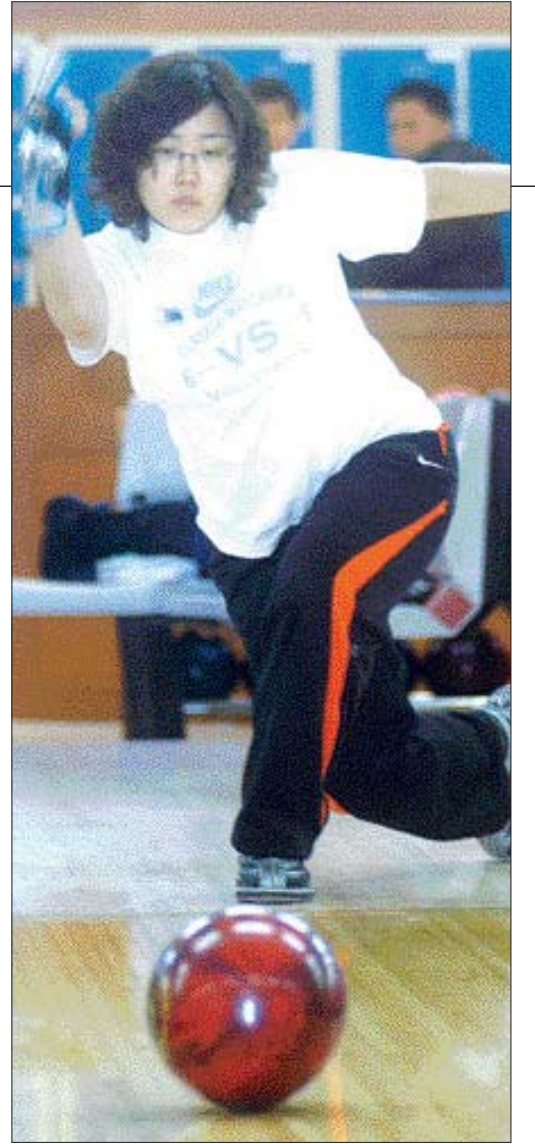
매 프레임 ‘광’ 소리를 내며 시원스럽게 터지는 ‘스트라이크’와 스플릿이 나더라도 묘기에 가까운 투구로 커버처리를 하는 선수들의 멋진 기량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또한 일반부 여자 경기는 출전선수가 모두 실업선수들이기 때문에 각 팀마다 특색있는 패션과 짧은 치마를 착용, 한껏 여성미를 드러내고 있어 경기 외에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대전대표 최진아는 국내 최고의 기량을 지닌 선수로 여자 선수로는 드물게 파워볼링을 하는데다 백스윙이 높고, 뺨이 먹이를 노리는 것과 같은 특이한 폼으로 인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국가대표 만인인 광주대표 김여진은 이번 2007 세계여자볼링선수권대회 2인조전에서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10차례의 프레임을 모두 스트라이크로 처리, 대회 첫 퍼펙트 게임을 작성하는 등 뛰어난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홍수연, 윤희여, 이나영, 손연희(광주별인퍼컴) 등 광주대표들은 청소년대표, 국가대표로 이뤄져



김여진

이번대회 종합우승을 노리고 있어 광주팬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남자부에서는 국가대표인 전남 광양시청의 최복음과 정진호(광주시체육회)가 발군이다.

한편 이번 광주전국체전에서는 남·여 개인전, 2인조전, 3인조전, 5인조전, 마스터즈(개인종합 10강에 든 10명이 최종순위를 가리는 경기)경기가 펼쳐진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프로농구 경기장서 북 사용 못한다

앞으로 프로농구 체육관에는 북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

한국농구연맹(KBL)은 12일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제13기 3차 이사회를 열고 '경기장 안에서 북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2007~2008 시즌 대회요강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홈팀 관중에 한해 지름 1m이내 작은북을 체육관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미리 녹음해둔 북소리를 응원용 위해 너무 시끄럽지 않게 트는 것은 허용된다.

또 지금까지 경기 도중에 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던 축포도 앞으로는 경기 종료 후에만 발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홈팀이 제재를 받는다.

KBL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응원단이 너무 세계 북을 치는 바람에 시끄럽다는 관중 불만이 많았고, 중계에도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중 축포 발사 금지에 대해서도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축포를 쏘 경기에 지장을 준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지에 시즌 최다승 도전

한국여자프로골프에서 적수가 없는 '신지' 신지에(19·하이마트)가 시즌 최다승 신기록 수립 길목에서 강적을 만났다. 14일부터 사흘동안 경기도 용인 88골프장

(파72·6천269야드)에서 열리는 제12회 SK에너지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하는 신지에의 목표는 시즌 여섯번째 우승으로 시즌 최다승 신기록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 5승...내일 개막 SK에너지인비테이셔널 우승 노려

한국여자프로골프 시즌 최다승 기록은 현재 5승.

구옥희(L&G)가 1980년과 1982년 두차례 5승씩 거뒀으며 신지에는 지난 8일 끝난 KB국민은행 스타투어 4차대회 우승으로 최다승 타이에 올라섰다.

또 우승 상금 1억원을 보태면 남녀 프로골프 선수 가운데 사상 처음 시즌 상금 4억원을 돌파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앞으로 9개 대회가 남아 있고 시즌 상금도 이미 3억2천500만원에 이르러 신지에가 다승과 상금 부문에서 새 기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사실상 예약됐지만 내친 김에 2주 연속 우승으로 새 기록을 세우겠다는 태세이다.

그러나 SK에너지인비테이셔널에서 신지에는 강력한 라이벌 안선주(20·하이마트)와 지은희(21·캘러웨이)의 견제 뿐 아니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김미현(30·KTF), 김영(27), 홍진주(24·SK에너지)의 도전을 뿌리쳐야 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는 LPGA 투어에서 여전히 정상급 기량을 펼쳐보고 있는 김미현. 김미현은 이 대회 초대 챔피언이며 88골프장에서 경

기를 치러본 경험은 웬만한 국내 선수 뺨칠 만큼 풍부하다.

폭우로 엉망이 된 아칸소 챔피언십을 기권하고 일찌감치 한국으로 날아와 연습 라운드를 한 김미현은 하루에 서너타 가장은 쉽게 줄일 수 있겠다며 모처럼 국내 무대 우승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LPGA 진출 5년만에 첫 우승을 따낸 김영 역시 국내에서도 우승 세리머니를 펼쳐 보이겠다는 다짐이다.

작년 이 대회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해 스타덤에 올랐고 여세를 몰아 LPGA투어 코오롱-하나은행 챔피언십을 제패했던 홍진주도 대회 2연패로 LPGA 투어에서 부진으로 떨어진 자신의 값어치를 되찾겠다는 각오로 출사표를 냈다.

하지만 이들 LPGA 투어선수들을 상대하는 신지에는 자신만만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LPGA투어 대회에서 신지에는 특급대회인 US여자오픈 6위에 이어 에비앙마스터스에서 공동 3위를 차지하는 등 LPGA투어에서도 밀리지 않는 기량을 검증받았다.

더구나 SK에너지 인비테이셔널은 2005년 우승, 작년에는 준우승을 거둬 자신감이 더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빛 과녁'을 향한 호흡 조절

12일 광주시 염주동 서향순 양궁장에서 열린 올림픽 제패기념 제24회 회장기 대학·실업양궁대회 여자대 학부 30m개인전에 출전한 선수들이 활시위를 힘차게 당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